

큰스님 수행한담

“불행 막으려면

다시 푸는 경서

수심결(修心訣) ③

昔異見王 問婆羅提尊者曰 何者是佛
석이경왕 문바라제존자왈 하자시불
尊者曰 見性是佛 王曰 師見性否
존자왈 견성시불 왕왈 사견성부
尊者曰 我見佛性 王曰 性
존자왈 아견불성 왕왈 성
在何處 尊者曰 性在作用
재하처 존자왈 성재작용
王曰是何作用 我今不見 尊者曰
왕왈시하작용 아견불견 존자왈
수현作用 王曰不見 王曰於我有否
금현작용 왕자불견 왕왈어아유부
尊者曰 王若作用 無有不是 王若不用
존자왈 왕작용 무유불시 왕악불용
體亦難現 王曰若常用時 幾處出現
체역난견 왕曰若常用時 幾處出現
尊者曰 若出現時 當有其八
존자왈 약출현시 당유기팔
王曰其八出現 當爲我說 尊者曰
왕왈기팔출현 당위아설 존자왈
在胎曰身 處世曰人 在眼曰見
재태왈신 처세왈인 재안왈견

왕이 물었다.
“나에게도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까.”
존자가 말했다.
“만약 왕께서 작용하고 있다면 불성
아닌 것이 없지만 왕께서 만약 그것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몸도 또한 보기 어
렵습니다.”
왕이 물었다.
“만약 작용할 때는 몇 곳에서 나타
납니까.”
존자가 말했다.
“나타날 때는 여덟군데로 나타납니
다.”
왕이 말했다.
“그 나타나는 여덟군데를 나를 위해
설명해주십시오.”
존자가 말했다.

“태(胎) 안에 있으면 몸이라 하고,
세상에 나오면 사람이라 하며, 눈에
있으면 보는 눈이라 하고, 귀에 있

“무엇을 부처라고 합니까”
“견성하는 것이 부처입니다”

在耳曰聞 在鼻辨香 在舌談論
재이왈문 재비변향 재설담론
在手執捉 在足運奔 現具殺沙界
재수집착 재족운분 현구해사계
收攝在一微塵 識者知是佛性
수섭재일미진 식자지시불성
不識者喚作精魂 王問心即佛性
불식자환작정혼 왕문심즉불성
佛性者誰能說 佛性者誰能說

“태(胎) 안에 있으면 몸이라 하고,
세상에 나오면 사람이라 하며, 눈에
있으면 보는 눈이라 하고, 귀에 있

옛날에 이견왕이 바라제 존자에게
물었다.
“무엇을 부처라고 합니까?”
존자가 대답했다.
“견성(見性)하는 것이 부처입니다.”
왕이 물었다.
“스님은 견성했습니까?”
존자가 말했다.
“나는 불성(佛性)을 보았습니다.”
왕이 물었다.
“그 불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존자가 말했다.
“불성은 작용하는 가운데 있습니
다.”
왕이 물었다.
“그것은 어떤 작용이기에 나는 지금
보지 못합니까?”
존자가 말했다.
“지금도 나타나서 작용하고 있습니
다만 왕께서 스스로 보지 못할뿐입니
다.”

“태(胎) 안에 있으면 몸이라 하고,
세상에 나오면 사람이라 하며, 눈에
있으면 보는 눈이라 하고, 귀에 있

혜정스님 (문수사 주지)

올해는 어느해보다도 더위가 일찍 찾아와
공부하기도 일하기도 다들 힘들다
고 합니다. 언론매체에서도 때론 더위에
모기와 파리, 각종 벌레들이 마구 번
식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피해를 주고
있다는 보도를 많이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기거하는 삼각산 문수사는
그런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비교적 잘
보존된 삼각산의 자연과 그속에서 뿜어
져 나오는 깊은 정기 때문이지요. 요즘도
도시하복판 보다 평균 4~5도 정도 온도가
낮아서 생활하기에 적절합니다. 문수사
는 고려시대 여종 4년에 탄연 대감국사
가 지은 절인데 부처님 모시는 선불당
으로 이만큼 좋은 장소도 드물거라는 생
각이 듭니다. 이 문수사에서 생활한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매주 일요일이면 많은 사람들이 신선
한 공기를 마시러 산에 올라 옵니다. 그
래서 등산을 겸해서 절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불교교리법회를 열고
있습니다. 삼각산 입구에서 한 두시간 정도
걸어야 문수사에 도착하는데 아침 일
찍 산에 올라 문수사에서 법문도 듣고,
적심공양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요.
무더운 요즘에도 산을 찾는 이들은 꾸준
합니다.

내가 출가하던 시절만 해도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모든 것이 부족하기만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씀
씀이는 그렇게 넉넉하고 고울수가 없었
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풍만족도 나눠먹
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코방귀를 끼지만
그 시절엔 정말 그랬습니다. 누가 더
많이 가져나하는 물질적인 가치보다는
어떻게 나눌 것인가하는 정신적 가치, 바
로 마음이 우리 삶의 중심이었기 때문이
지요.

산을 오르는 일은 수행의 과정과 같습
니다. 바쁘다고 서두르다 보면 이내 지쳐
정상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빨리 깨
달려야 한다고 깨달아 지는 것이 아니듯
이 말이죠. 수행이 여러 방법이 있듯이
산에 오르는 길도 여러갈래가 있습니다.
매주 산을 오르며 자연과 대화하고, 깊은
산에 자리한 불당에서 불법을 만나는 일
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
보다 먼저 일어나는 부지런함과 인내와
끈기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수행자로서 첫 발을 내디뎠던 봉
암사는 신라 구산선문(九山禪門)의 하나
인 회양산파의 종찰로서 현재까지 선도
량(禪道場)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곳
입니다. 그곳에서 청담스님을 은사로 출

- 31년 총북성
봉암사에서 청담스님을
은사로 득도
58년 해인사 강림 대교과 졸업
동화사 주지 역임
조계종 총회의원 역임



남보다 더 가지려는 욕심
그것때문에 모든것 잃게돼요
많이 가지려 말고 나누세요

가했습니다. 여러 도반들과 함께 매일 새벽
일어나 예배드리고, 참선하는 하루 일
과속에서 '네 마음자리를 찾아라'는 은사
스님의 경책을 한시도 놓은 적이 없
습니다. 스님은 수행에 있어서는 너무나
엄격하고 무서운 분이셨지요. 하지만 항상
마음법문을 일러 주시며, 우리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중요한 사실을 잊은채 정복의 대상으로
써 자연을 마구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시
킨 결과가 오늘날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인간의 생활,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
니다.

자연 질서의 파괴는 곧바로 우리 인간
의 생명으로 이어지는 중대한 문제입니
다. 하지만 나날이 복잡다양해져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가장 소중한 가르침들을
스스로 잃어가고 있는 것이죠. 부처님은
이미 2천5백년 전에 우리에게 이러한 가르
침을 주셨습니다. 자연과 우주의 질서
를 스스로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불자의
삶입니다.

참다운 불자로 살아가기 위해 가장 먼
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바로 육바라밀(六波羅密)의 실천이라고
봅니다. 스님이 아니라해도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육바라밀은 모
두 다 실천해야할 중요한 생활실천 수행
덕목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남에게 베푸는 것,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
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개)와 감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
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밤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
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
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
름살이 퍼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 격: 정가 칠십만원(7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여러분에게 오십만원에 할
인하여 드립니다.
입금구좌: 대구은행 161-07-412768-001 (대구여러한방)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총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르몬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뚜머리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육고(경육고) 같이 생긴
「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
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총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 박 법륜 합장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개)와
감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
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
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
(不老化精)은 영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쫄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출신식(2개월 50만원), 출혈소정액(2개월 50만원)
익수영진고(2개월 100만원), 치신왕기환(3개월 50만원)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산승(山僧)은 비구니로 80여년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여든의 늙은이로
현재 대구 반야사 주지로서 어린 장애자를 양육,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
니다. 나는 20여년간 신경통, 고혈압, 위장질환, 몸이 붓는 증세(浮腫)로
고통을 받던 중, 천일지장기도가 끝나는 날 꿈속에서 붉은 스님의 얼굴과
똑같은 시연스님을 만나게 되어 한번만 침을 맞은 후 자연건강식품 「불로
화정(不老化精)」을 복용하고 모든 난치병이 완쾌되었으므로 그 너무나 큰
고마움의 말씀을 글로써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시 반야사 (전화 053-614-7935) 주지 김 혜명 합장

Advertisement for 'Cross Health Method' (크로스 건강법) featuring a woman and product images.

참가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다 세시미는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
하는 효과가 인체내 각종을 받고 있
는 새로운 기능성을 물질로 지킴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한 사실이 있음.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문의전화: (053) 655-2227
(011) 808-8880